

봉화 닭실마을의 立地環境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Residential Environment of Daksil in Bonghwa

조영화*

Cho, Youngwha

곽동엽**

Kwak, Dongyeob

Abstract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oncepts of Confucian Utopia in Chosun Dynasty by looking into a sample of Daksil Village in Bonghwa area. Here are some of the investigation. 1. The spatial composition entities of Daksil Village are both Confucian and Tao elements. 2. The whole views are made up by placing the Taoist View(gardens) into the Confucianist view(village and Seowon) and by placing the Confucianist view(summer house) into the Taoist view(Valley view of Seokcheonjeong). Two worlds are integrated into one by including each other. 3. According to the theory of geomancy(feng-shui), Daksil has the shape of 'Geum-Gye-Po-Ran (Golden chicken embracing eggs)', which is considered to be a land of fortune. Conclusively, Confucianists in Chosun Dynasty adopted feng-shui details when they built a residence, while they put much importance on Confucian and Tao elements. Moreover, it is found in the records that "It is a good place to start a village if there are mountains and water near the residence." The fact that Daksil village is located at a day's distance from Seowon-Seokcheonjeongsa-Village-Jaesil-Grave proves that the residential village is set at an ideal place.

Keyword : Residential Environment, Daksil, Confucian Utopia, Feng-shui, Seokcheonjeong, Choongjae, Confucianist view, Taoist view

I. 서 론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어떤 원리가 있고 운치와 품위를 유지한 듯 하며 거주지 선택에도 매우 신중하였다. 그곳에 정주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卜居觀에 따라 입지를 택해 삶의 터를 잡고 마을을 구성하였으며, 또 그들의 소우주관에 따라 생활영역을 형성하는 테두리를 만들었다. 또한 이중환의 指里志에도 '십리 밖 또는 반나절 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매양 생가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장만해 둔다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 나갈만한 방법이다.'라고 하여 정서적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擇里, 卜居, 占居, 明堂, 相宅, 三災不入之地, 避兵地, 家居地, 金湯地, 可久居地, 福地, 隱遁地, 非地之地, 10勝地 등 이런 말들은 이상적 터를 바탕한 삶의 공간에 대한 언어들로 볼 수 있다. 형태적으로 '봄을 숨기기에 알맞은 곳'이고 내용적으로는 '氣가 있어 의미가 있는

곳'을 선택한 듯하다.

특히,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경우 그 유교문화가 일면 지극히 형태적이었다는 사실에서, 선비들이 이루었고 또 이루려했던 주거공간에도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 글은 그 당시 선비들의 立地觀 내지는 定住觀을 하나의 동족부락을 택하여 어떠한 문화를 타당에 깔고 발전시켜왔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유교문화를 잡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西谷里와 三溪里에 소재하고 있는 안동 권씨 중 沖齋 權機이 世家를 이루었던 씨족마을인 「닭실(西谷)마을」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충재가 마을을 형성한 이후부터 대상지의 주요 경관이 완성되는 18세기까지를 대상으로 잡았다.

공간적 범위는 충재와 그 후손들의 입지관 내지는 정주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닭실마을을 중심으로 한 세거리, 충재 후손들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삼계서원과 석천정사일대의 삼계리, 재실을 중심으로 한 재궁골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현지 답사와 종손과 후손들의 면담 및 문

*정회원, 대경대학 건축디자인과 조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대진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현조사를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닭실마을의 형성과 전개

조선전기 散村들이 점차 성씨를 주축으로 하는 혈연적인 集村으로 새롭게 변모하게 되는데는 조선 건국이래 士族들의 移居와 정착과정이 연관되어 있었다. 麗末鮮初의 전환기에 사족들은 妻鄉이나 外鄉 등 연고지를 따라, 혹은 鄉·所·部曲 등 행정편제상 중앙정부의 통제가 철저하지 않은 지역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삼았다. 대개 입향조나 낙향조로 불려지는 이들 조선전기 移居士族들은 이후 동족적인 확대와 조직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지역의 후손들에 의하여 派祖나 中始祖로 추앙을 받는데¹⁾, 닭실마을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마을 일대를 예전에는 吐谷部曲이라 했는데 고려 때 退串部曲이 奈城縣으로 승격되면서 편입된 마을로 沖齋權機(1478-1548)이 기묘사화를 입어 파직되어 돌아온 그 이듬해 1520년에 안동 道村에서 山林지역인 이곳에 터를 잡아 마을을 잡았던 곳이다.

입향조인 권별의 자는 仲虛, 호는 沖齊이며, 안동 권씨 복야공파의 10세손이다. 연산군 2년(1496)에 진사, 중종 2년(1507)에 문과에 올라, 한림, 사인, 감사를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다. 인종 1년(1545)에 錄勳되었으나, 곧 삭제되고, 함경도 삭주로 귀양갔다가 명종 3년(1548)에 추하였다. 선조가 즉위하자 復官하고 좌의정을 증직하였다.

충재가 중종14년(1519) 을묘사화가 일어나자 연루되어 관직에서 물려나 이듬해인 1520년에 어머니 파평 윤씨의 묘소가 있는 풍광이 수려한 닭실에 살 땅을 잡았다. 이곳은 외조부 尹塘이 살았던 곳이다²⁾. 후에 마을 동쪽에는 외손(충재의 큰딸)의 후손들인 남양 홍씨들이 살기도 하였다³⁾. 윤당은 세조가 妻父인 芝峯 皇甫仁의 가솔을 절명시키려하자, 유곡에 숨어 살았으며 일남일녀를 두었다. 딸은 생원 權士彬과 혼인하여 4남 1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현감을 지낸 野翁公 機이며, 둘째가 沖齋 機이고,셋째가 딸인데 李誠에게 출가했고, 넷째가 찰방을 지낸 機이며, 막내가 문과급제하여 弘文正字를 지낸 霽村公 機이다. 애옹공과 제촌공은 안동 맛질에서 살았고, 충재와 찰방공은 유곡에 살았는데 찰방공은 자손이 없었다⁴⁾.

충재는 4남 2녀를 두어 長子가 東輔(호: 青巖), 次子가 東美(호: 石亭)인데, 청암공은 후손이 없어 석정의 차

자인 來(호: 石泉)가 종가에 입양되어 춤손이 되었다.

권별은 이미 선대부터 지역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촌으로부터 봉화의 토지까지 물려받았다. 충재가 귀양가서 추한 후에도 지역의 경제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손들에게 물려준 토지는 논밭으로 2,300여 마지기(약 70 ha)에 달했고 노비는 300여 명이 이르렀다. 이런 경제력 덕분에 권별의 자손들은 항리어서 계속 지배 계층으로 살아갔으며 또 많은 건축물을 지어 냈다⁵⁾. 권별의 맏아들인 청암은 부친이 경영한 유곡의 하류에 석천정사를 지었고 손자인 석천은 춤양의 충재가 마련한 터에 寒水亭을 남겼고, 권동미의 장자인 采는 마을 옆에 松巖亭을 경영하였다.

III. 닭실마을 일대의 空間構成

닭실마을은 봉화읍으로부터 1.6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차량으로는 울진으로 가는 국도 36호선에서 청계교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도보로는 지방도 915선을 통해 삼계서원을 거쳐 가계천과 내성천이 합수되는 곳에 설치된 삼계교에서 가계천을 따라 진입하면 청하동천과 석천정사를 거쳐 마을로 진입할 수 있다. 일제 때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삼계서원쪽에서만 마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유교의 자연·공간관은 原始儒學과 這家, 佛家의 사상이 종합된 것이다. 유교문화의 공간관으로는 계층적, 차별적 공간구성과 의례장소를 강조하였고, 도교·불교의 영향에 의한 정자와 정사 등 수기(修己)공간의 강조하였으며, 계거지의 선호와 풍수비보의 성행 등이 가장 큰 특징들이다.

닭실은 이러한 특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교마을이다.

닭실마을 전체의 공간은 기능적으로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삼계서원일대의 강학공간(A구역), 석천정을 중심으로 하여 靑霞洞天 등의 계곡으로 이루어진 휴식공간(B구역), 종택과 청암정이 위치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간(C구역), 추원재와 묘소, 신도비로 구성된 추모공간(D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선생이 이곳을 얻어서 황무한 착초를 베어내고 기이하고 가려한 부분을 찾아내어 넓게 빙곳은 집을 짓게 하고 높고 깨끗한 곳은 정자를 세우고 평坦한 곳은 대를 모아 글을 읽어서 착한 道를 강론⁵⁾하도록 여기서하고 놀고 거닐고 소요하며 유유자적함도 여기서하고 좋은 업을 닦아서 자손에 남길 만년대제도 여기서 하였으며

1) 이해준, 조선전기 촌락사 1996. 민족문화사. p60

2) 안동권씨유곡파종회, 西谷, 영남사, 1995. p42

3) 안동권씨 유곡종증, 西谷, 영남사, 1994

4) 안동권씨유곡파종회, 西谷, 영남사, 1995. p42

5) 김동욱, 조선시대건축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9. p.129



그림 1. 닭실 일대의 공간구성

사후에 의관을 안장함과 제사에 예절을 갖추는 祠宇 등이 모두 이 산과 이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아마 하늘이 마련하고 땅을 비장해 두었다가 선생에게 물려줄 것을 허락함이라, 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⁶⁾

이러한 공간구성은 사대부 전 생애의 일상생활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닭실 전체의 공간구성 요소는 풍수적인 요소, 유가적 요소, 도가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풍수경관은 닭실마을 전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범주에 유가적 경관과 도가적 경관이 나누어져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학사상과 도학사상은 별서경영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한편 노장사상의 영향을 사회풍조로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난세와 정치를 피하여 청담을 좋아하고 은일을 즐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학사상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려말에 별서의 성행을 보았는데 특히 조선조 오백년동안의 승유정책과 더불어 거듭되는 시화와 끊이지 않는 당쟁을 위시하여 임진, 정유, 정묘, 병자의 외침 등은 별서경영을 촉진시키고 성행케 하였다.

'西谷雜誌'⁷⁾에서는 유곡의 경치를 45景으로 집약하고 있는데 이의 많은 부분들이 마을 주변의 풍수적 지형지세, 청암정과 석천정, 기타 마을 주변의 경승 자연요소를 들고 있다. 닭실의 대표경관은 西谷八景으로 전해오는 "玉峰落照, 西館朝輝, 青巖荷池, 松巖秋月, 氷涯帆葉, 霞窟桃花, 青巖薯藪, 石泉瀑布"를 들 수 있다. 즉, 풍수요소로는 옥적봉, 마을의 건축물로는 종택(西館), 정원요소로는 청암정과 송암정, 석천정 기타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마을을 대표하는 경관자원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유가와 도가적 경관도 그 안에 부분적으로 서로 반대편의 경관을 포함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경관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다. 즉, 마을경관과 서원경관 속의 정원경관은 도가적 부분이고, 석천정 계곡경관 속에서도 精舍는 修己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적 경관으로 볼 수 있다.

1. 道家的 공간구조 요소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국가, 사회,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대의명분, 입신양명 등)가 있는 반면, 그 소극적인 면으로는 은둔사상이나 은일사상으로 나타난다.

은둔사상은 風水說, 可居地, 明哲保身, 壽福康寧, 考終命, 十長生 등과 아울러 노후와 자손을 위하여 생업의 터를 마련하여 농촌의 향반으로 도사리는 농촌사회적인 소극적인 자연과 천명에 순종하는 사고로 나타나기에 이른다.

무위자연적 은일사상은 도교의 영향이 더 크며, 유교는 은둔적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자들은 자연적 생활의 사상적 배경에 성리학만이 영향했다는 것은 아니다. 유교가 지배한 사회였으나 문객들은 노·장사상을 비롯한 도가 諸書를 탐독하여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았다⁸⁾.

은둔과 은일은 일견 상통하고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은둔이 현실도피라면 은일은 현실초탈의 도가적 사상이다. 이런 은일사상은 위진 남북조 시대 죽림칠현들에게서 보는바와 같은 고답적 정담을 냥게 하였다. 그들의 사상은 노장에 입각한 한편, 신선사상에도 심취하였다. 이런 도가적 은일사상은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어 신라 때에는 화랑에 영향을 주었고, 고려 무신집권기에는 문사들에게 은일사상을 심어 주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정주학 일변도의 유가사상의 시기였으나, 唐宋문학을 숭상하여 온 문인들은 그들의 교양으로 老莊書를 탐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영향으로 도가사상 내지 신선사상이 그들의 時調에까지 오르게 되었다⁹⁾.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리학자들 가운데는 주자학의 창시자 周喜의 무이정사와 무이구곡의 계보에 따라 정사를 건립, 구곡을 경영하는 등 조선중기부터는 구곡원림의 계보가 형성되어 갔다. 성리학자들은 주자학을 전념하면서도 또한 주자의 棲息講道하는 생활양상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성리학자들은 무이구곡도를 완성하고, 무이구곡가를 次韻하면서, 무이지를 애독하거나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퇴계의 도산구곡을

6) 국역 석천지, pp.52-53.

7) 西谷雜誌은 중국 裴迪의 轩川別業에서 지은 시체를 모방하여 유곡의 45곳의 절경을 楚平公과 조카인 江左公 이 부르고 화답한 五言絕句. 국역 석천지 pp198-238

8) 이종은, 시조문학에 나타난 은일사상 연구, 시조문학연구, 정음사, 1980, p.190

9) 이종은, 전계논문, p.191

보면, 도산구곡은 우리나라 전형적인 구곡원림으로서 최초로 성립되었다¹⁰⁾.

1) 石泉精舍 溪谷

석천정사 계곡은 다른 이름이 '靑霞洞天'인데 '洞天'이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으로 도가에서 신선이 사는 장소를 의미했다. 우리나라의 八景, 九曲 등이 대부분 이러한 동천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선비들의 도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닦실마을의 원래 진입방향은 삼계서원을 지나 석천정 계곡을 통하여 진입할 때 호리병과 같은 흥국으로(展也 壺裡乾坤) 기승전결의 과정이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경관구조이다.

청하동천은 경관적으로 보아 전망이 분리되는 다섯 개의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局은 도입구간으로 合水지점이고, 두 번째는 전개구간으로 청하동천과 寫字石, 青霞窟이 있는 구간, 세 번째는 절정구간으로 石泉精舍와 白石梁, 仙肺巖, 飛龍瀑이 있는 구간, 네 번째 국은 이완구간으로 별다른 경관요소가 적고, 다섯 번째 종결구간에서는 성황당을 돌아 마을을 바라다보게 되는 구간이다.

2) 靑巖亭

1526년에 충재가 석천정사와 동시에 위치 선정한 일종의 별당정원이다. 종택의 서편에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여 圓池圓島型의 특이한 형태를 이루었다. 형승은 석천정사와 쌍벽을 이룬다. 석천지(石泉誌)에 "청암과 석천을 조물주가 서로 만나게 함이 어찌 輞川이 王維와 裴迪을 만남에 비할 것인가."라고 하여 청암정과 석천정이 대조적인 짜으로 닦실의 경관을 특징짓는 것으로 보았다.

세부형태는 기단으로 사용되는 거북 모양의 바위위에 T자형의 평면형을 가진 정자를 세웠다. 후면부의 人爲造山과 함께 종택의 風水 秘補 장치로서의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儒家의 공간구성 요소

조선중기애 오면 성리학이 최고의 정신적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때 와서 기준 유교의 경전들을 새롭게 재해석하여性命과 理氣의 관계를 통하여 우주의 본체와 인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심화한 것으로 설명된다. 16세기는 사람들을 의해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 내린 시기이다. 특히 중국에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행적은 그대로 조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주자는 만년에 무이산에 들

10) 이은창, 한국유가 전통원림의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4집, 효성여대전통문화연구소, 1988. pp.256~260

어가 무이정사를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자연을 벗삼아 은거했다.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이를 본받아 정사나, 서당, 정자 등을 고향근처 경승지에 짓고 학문 생활과 후진 양성에 몰두했다. 이 때 선비들이 지은 건물들은 자연 속에 파묻힌 소박하고 검소한 것으로, 절제와 겸양을 신조로 삼은 선비들의 윤리관이 잘 반영되었다.

17세기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주·학의 실천 윤리가 주장되었다. 그것은 주자가 강조한 가례의 실행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중시된 것은 조상에 대한 제례의식이었다. 이를 위해서 집에는 반드시 기묘를 세우고 일정한 법도에 따라 제례를 치르는 것이 규범화되었다. 가례의 규범은 사대부의 주택을 바꾸어 '동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성리학이 지배적인 흐름이 되자 집 짓는데도 성리학에 입각한 일정한 규범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주자가 주장한 제사지내는 절차나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고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절제와 소박함을 바탕에 두고 자연과 일체가 되고자 한 건축관도 선비들의 정자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1) 講學空間

(1) 三溪書院 : 석천정사 동구밖 2리 되는 지점에 삼계서원을 건립하였는데 충재를 봉향하는 곳이다. 1588년에 이 지방 유림들이 발의하여 1592년에 묘우를 건립하였으나 임진란으로 말미암아 入享禮를 거행치 못하다가 1601년 9월에 비로소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으며 1660년에 사액을 빌았다.

(2) 石泉精舍 : 석천정사는 충재 당시는 축대만 있었는데, 아들과 손자인 靑巖, 石良이 년자로 석천정사를 세웠다. 현재의 건물은 1710년 충재의 5대손인 하당, 창설 두 후손에 의해서 중건되었다. 정·란 원래 불교적인 용어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학문을 가르치려고 만든 건물로 語義가 바뀌었다.

2) 追慕空間

이 공간은 마을의 뒤쪽 산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관구조는, 물(계류) 서낭당 종가 재실 묘지 산 하늘의 향천적(向天的) 경관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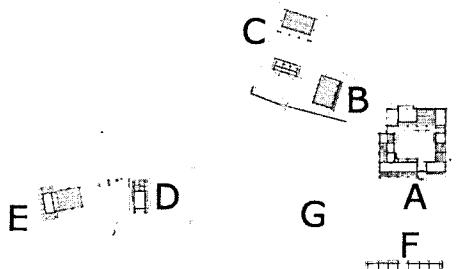
(1) 재궁골과 追遠齋

재궁골(일명 재사동)은 안닭실에 있는 안동 권씨의 묘역공간으로, 그 중심건물이 추원재라는 재실이다.

경북 북부지방에 소재한 재실들은 대체로 口자형 평면을 가진 중층의 건물들이 일반적인데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추원재도 이러한 특징을 가진 口자형의 전면이 중층으로 된 건물이다.

(2) 신도비와 묘소

재사동이 유곡마을 서북쪽 일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충재 묘소와 配位 정경부인 최씨와 합묘이다. 조



A: 정침 B: 간장각 C: 사당 D: 근사재 E: 청암정 F: 대문재 G: 유물관

그림-2. 충재종택 현황

금 위에 충재의 先考인 의정공 및 정경부인 윤씨 묘가 있고 또 그 위에 충재의 장자인 청암공의 묘가 있다. 또 한 충재 묘 앞 언덕에는 충재의 신도비가 있다.

3) 宗宅의 경관

종택은 마을의 뒤편의 가장 명당으로 알려진 위치에 정침, 사당, 간장각, 청암정, 근사재 등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충재유물관이 첨가되었으며, 별묘와 고직사 등은 없어졌다.

(1) 祭廳閣 : 종택의 정침과 사당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祭廳의 기능을 가진다. 이 건물은 충재의 5대손인 權斗寅(호: 荷塘, 1643-1719)이 건립하였다.

(2) 祠堂 : 종택의 서쪽에 터가 높은 곳에 위치하며, 지형에 따라 서쪽에 건립하였다.

(3) 近思齋 : 청암정 동쪽 둘에 있는 집으로 원래 충재가 기거하면서 학문을 닦던 곳이다.(일명 沖齋).

IV. 닭실마을 풍수경관 해석

1. 닭실(西谷) 지명 유래

이곳의 지명을 닭실(西谷)이라고 이름 한 것은 이 마을 뒷산의 형태가 마치 닭이 날개를 치면서 우는 형상과 같다하여 유곡이라고 하였다. 닭은 다른 동물과는 특이한 점이 많다. 즉 닭은 새벽의 기운을 제일 먼저 받고 "꼬끼요" 하며 울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와 같이 닭은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꼬끼요'는 다른 한편으로는 고귀위(高貴位) 즉 높고(高) 귀(貴) 한 계급(位)을 뜻하며, 닭은 거의 매일 알을 한 개씩 낳아 다른 어느 동물보다 번식력이 크다.

조선 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충재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근면, 면학으로 출세와 번영 그리고 사회봉사 등 유익한 업적을 이룬 것은 이 곳의 산세나 지명과도 일치하고 있다.

2. 닭실의 풍수지리적 요소

1) 主山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발원한 한 지맥이 백병산에서 文殊山(1206 m)으로 뻗어 나와 동쪽 가지가 흘러서 갈방산(葛坊山)이 되었고, 갈방산은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봉화의 鎮山인 금륜봉(金輪峯)을 이루었다.

문수산 중턱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松生洞이 되어 토일 마을을 이루고 다시 내려와 생긴 봉우리가 白雲嶺(280 m), 重九臺(250 m)가 되어 마을 뒷산으로 主山이 되었다. 닭실의 主峰은 마치 닭이 날개를 치며 울 때 알을 품고 목을 드리운 듯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2) 青龍

닭실의 좌청룡으로는 신선이 옥통수를 불었다는 玉笛峯(321 m)이 있다. 이 옥적봉은 金輪峯에서 시작한 맥이 서북으로 흘러 거촌과 산정을 끼고 沙金洞을 지나 西谷의 동남방에 이르러 힘차게 솟아 오른 높은 봉우리이다.

3) 白虎

문수산으로부터 한 능선이 서쪽으로 흘러와 재실과 묘가 있는 재궁골이 되고 빙청과 水沙尾를 거쳐 마을의 우측을 감싸는 우백호이면서 三溪書院의 주산이 된다.

4) 朱雀

닭실의 남쪽 정면에는 문수산에 연결된 갈방산으로부터 뻗어 나온 지맥이 서쪽으로 향하면서 점점 낮은 형태로 변해 비티재(비잇재)로 연결되어 다시 솟아 종택마을 앞에 가로 뻗어 남산이 되어 안산을 이루고 황토강에 와서 맥을 정지하고 있다.

5) 入水

닭실의 주산인 백설령과 중구대를 배산하여 가거지를 이루고 전면 한 마장 건너편에 맑은 물의 가계천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 이 가계천 (일명 前溪)은 문수산의 동쪽에서 발원한 昙坪川이 유곡의 동남편으로 흘러 들어와 유곡 전면을 통과한 후에 안산의 맥이 다하는 지점에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西南방향에서 水口를 이룬 후 石泉溪谷으로 흘러 나간다.

가계천은 수구로 빠지기 전에 유곡의 서북편에서 흘러 들어와 서남으로 흐르는 西溪와 합류하여 물이 만나는 풍수지리상 합수 지점을 이룬다. 이 물은 석천정사 앞의 계곡을 빠져나가서 삼계서원 앞으로 흐르는 동막천과 합쳐 乃城川을 이루며 이것이 낙동강의 지류가 된다.

3. 닭실의 地勢와 形態

조선시대의 풍수가 李重煥은 擇里志에서 오래 전에 이곳 닭실을 경주의 양동, 안동의 내앞, 풍산의 하회마을과 함께 三南의 4대 吉地 중 首地로 뽑았다. 유곡 일대의 봉화지역은 전란의 피해가 없는 十勝之地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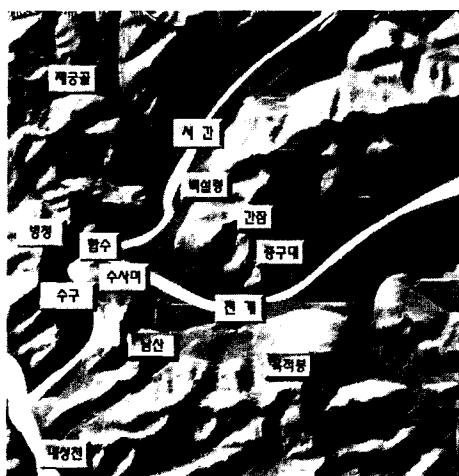


그림 3. 닭실의 풍수요소

이기도 하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산, 강 그리고 바람 등 자연의 기운에 의하여 형성된다. 마을 전체가 밝고 따듯하여 南向처럼 느끼게 되나 방위를 보면 南西向 즉 艮座坤向이다.

1) 닭실의 지세

닭실의 지세는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전 주작 그리고 후 현무 등 동서남북에 얇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또한 주산에서 내려온 맥이 닭실에 이르러 완만한 경사지와 평坦한 들판을 이루면서 南低北高의 이상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주택이 전면의 아담한 평지는 논으로 이용되며 논 전면에는 가계천이 흐르고 있다.

2) 金鶴抱卵 헝국

닭실은 금계포란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닭실의 동북에 있는 문수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그 줄기에서 서남으로 뻗어 내려온 白雪嶺은 암탉이 알을 품은듯한 형세로 자리잡고 동남향 즉 良座坤向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안산으로 있는 옥적봉은 솟닭이 활개치는 듯한 모습이다. 즉 닭실의 지세는 솟닭과 암탉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사랑을 나누며 알을 품는 명당이다. 닭이 알을 품은 형태는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며, 동시에 재산도 크게 늘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솟닭의 목에 해당되는 안티재가 도로와 철로를 건설하기 위해 잘룩하게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솟닭의 목이 잘려지는 듯한 형상이 되었다. 철로 건설 공사 후부터 이 닭실 마을의 운세는 점차 쇠락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수탉의 목이 잘려나가 기운을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V. 결 론

이 연구대상자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三南의 4대 명당 중 가장 秀地라 하였듯이 이 마을은 영남지방에서 卜居하기에 좋은 마을 중에 하나이다.

본 논문은 닭실마을을 택하여 당시 유학자들의 입지 또는 정주관에 따른 이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1. 닭실마을의 공간구성요소는 유가족인 요소와 도가적인 요소를 들 수 있다.

유가적 경관은 마을경관과 묘역경관, 삼계서원 경관이고 도가적 경관은 석천정 계곡경관으로 구성된다.

2. 이러한 유가와 도가적 경관도 유교적 경관인 마을과 서원공간 속에 도가적 부분인 정원을 두고, 도가적 경관인 석천정 계곡경관 속에서도 유교적 공간인 정사를 두어 그 안에 부분적으로 서로 반대편의 경관을 포함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경관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풍수적 경관을 살펴보면,

닭실의 지세는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전 주작 그리고 후 현무 등 동서남북에 얇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또한 주산에서 내려온 맥이 닭실에 이르러 완만한 경사지와 평坦한 들판을 이루면서 南低北高의 이상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국은 문수산이 병풍처럼 들려 있고, 그 줄기에서 서남으로 뻗어 내려온 白雪嶺은 암탉이 알을 품은듯한 金鶴拘羽로 풍수형국 중 아주 素地로 여겨진다.

결국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이상적인 정주관은 유가적, 도가적인 요소를 중히 여기면서, 풍수적인 면에서도 매우 세심하게 바우하였을 악 수 있다.

또한 家居地에서 한나절 거리에 산수를 벗하는 장소가 있다면 좋은 마을의 입지조건이라 하였는데, 이 닭실 마을은 서원·석천정사·마을·재실·묘까지 한나절 거리에 둑어 이상적인 거주지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이종은, 시조문학에 나타난 은일사상 연구, 시조문학연구, 정음사, 1980.
 2. 이은창, 한국유가 전통원류의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4집, 효성여대전통문화연구소, 1988.
 3. 이해준, 조선전기 촌락사 1996. 민족문화사.
 4. 안동권씨 유곡종중, 국역 석천지, 1994
 5. 안동권씨유곡파종회, 酉谷, 영남사, 1995.
 6. 김동욱, 조선시대건축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9.
 7. 봉화군, 문화유적총람, 2000. 2
 8. 봉화군, 닭설미을 정비 기본 계획, 2001. 11